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김준*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langara college는 스카이트레인 langara 49th avenue역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규모와 편리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에 불편함이 없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3주동안 밴쿠버, 문화 등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다른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한 반을 이루어 수업을 듣다보니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게 되어 좋았다. 학교에서 나누어준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학교지리나 밴쿠버의 명소들에 대해 알 수 있다. 대부분 주제를 정하여 그것에 대해 조별이나 파트너를 정하여 이야기하게끔 수업을 진행한다. 매일 저널을 작성해오거나 간단한 숙제들이 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카야킹, 디스커버밴쿠버, 아쿠아리움, 밴쿠버박물관, 휘슬러트립 등의 액티비티를 하였다. 추가비용은 간식을 사먹거나 기념품을 사갈 때 외에는 딱히 필요하지 않는다. 카야킹을 할 때 노를 저으며 물이 튀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디스커버 밴쿠버는 밴쿠버의 명소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이에 관련된 역사나 문화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할 때마다 간단한 과제들을 내주시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보니 밴쿠버를 충분히 즐기기 제한되었던 것 같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낮에는 햇빛이 강하여 선글라스나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추천하고 아침저녁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겉옷을 챙겨다니는 것이 좋을 것이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대부분 안전한 편이며 홈리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개스타운에 간다고 했을 때 홈스테이 가족들이 개스타운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홈리스가 많은 지역이 있다며 조심하라고 알려주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o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가족 부부와 일본인 홈스테이 학생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밥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주말에는 지인의 집들이를 데려가주기도 하고 쉽게 가기 힘든 관광지에도 차로 데려가 주셨다. 저녁은 7시 반에 먹었는데 처음 가족들과 만났을 때 시간을 미리 여쭙어보는 것이 좋다. 시간을 미리 알고 가족들과 연락할 수단을 만들어 저녁을 밖에서 먹게 될 때 연락을 드렸다. 시설은 아주 좋았으며 정말 가족처럼 살려주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 지내다 왔다.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DVD로 영화를 보기도 했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점심은 보통 집에서 싸온 샌드위치를 먹었고 가끔은 저녁에 먹고 남은 메뉴를 다음날 점심으로 싸가기도 한다. 저녁은 외부에서 먹기도 하고 홈스테이 집에 가서 먹기도 했다. 3주라는 시간이 짧기에 이곳저곳 가다보면 외부에서 저녁을 먹게 되겠지만 홈스테이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추천한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같이 간 학생들 중에 숙소가 혼자만 Richmond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학하기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스카이트레인과 버스가 잘 되어있어서 통학하는 데에 삼사십분 정도만이 소요되었다. 리치몬드는 밴쿠버에서 이동할 때 2 zone으로 분류가 되는데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compass카드가 숙소에 맞추어 2 zone카드이기 때문에 이는 상관이 없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222,000	
입장료(추가교통비)	79,000	
쇼핑	287,000	
기타	45,000	유심
합계	633,000원	사전납부 포함=2,388,031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홈스테이 가족들 선물을 사가면 좋을 것 같다. 친구는 한국적인 선물들을 가져가서 가족들에게도 주고 수업을 같이 들은 외국친구들에게도 주었는데 미리 준비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었다. 또한 홈스테이 가정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는지 슬리퍼를 가져가야 하는지 미리 메일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신발을 신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밖에서 신는 슬리퍼를 들고 갔는데 이 가정에서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여서 홈스테이 가정에 있던 슬리퍼를 빌려 신었었다. 이 시기의 밴쿠버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얇게 겹쳐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챙겨가도 좋을 것 같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외국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공부를 해야한다가 아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홈스테이와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했던 프로그램에서 홈스테이에서의 좋았던 기억과 좋은 사람들을 얻었고, 다양한 문화가 모여 있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캐나다만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아오지는 못했지만 밴쿠버라는 도시의 느낌과 분위기를 느끼고 온 것 같다. 휴학을 생각하던 나에게 휴학 후 영어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고 일본인 친구들과 홍콩계 캐나다인인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인연도 얻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개스타운</p>	<p>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p>
	
<p>휘슬러트립</p>	<p>빅토리아 아일랜드</p>
	
<p>아트갤러리</p>	<p>캐나다 도착한날 아침</p>